

황인범, 감각적 노룩패스로 첫 도움... 벤투에 '눈도장'

두 번째 공격포인트... 후반 33분 황의조와 교체
이달 A매치 두 차례 평가전 위해 오늘 대표팀 합류

2022카타르월드컵축구 국가대표 소집을 앞둔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감각적인 노룩패스로 그리스 진출 후 첫 도움을 올렸다. 팀은 아쉽게 1-2로 역전패했다.

황인범은 19일(한국시간)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클레안티스 비켈리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리스 테살로니키와 2022-2023시즌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 5라운드에서 0-0으로 팽팽한 전반 15분 멋진 노룩패스로 마수라스의 선제골을 도왔다.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롭게 올림피아코스 유니폼을 입은 황인범의 그리스 무대 첫 도움이다.

지난달 19일 아폴론 리마솔(키프러스)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이후 두

번째 공격포인트다

황인범은 가벼운 종아리 부상으로 최근 UEFA 유로파리그를 포함해 3경기에서 결장했다.

황인범은 전반 15분 빠른 역습의 시발점이 된 롱패스에 이어 잽싸게 페널티박스로 쇄도하며 감각적인 노룩패스를 선보였다.

동료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다시 마수라스에게 연결했고, 마수라스가 논스톱 왼발로 때려 골을 기록했다. 패스 과정에서 반대 방향에 시선을 뒤 수비를 흔들었다.

올림피아코스는 선제골에도 후반에 내리 2골을 내주며 1-2로 역전패했다. 리그에서 첫 패배로 2승2무1패(승점 8)가 됐다.

황인범은 후반 33분 공격수 황의조와 교체됐다.



축구 국가대표 소집을 앞둔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감각적인 노룩패스로 그리스 진출 후 첫 도움을 올렸다.

뉴스1

황인범과 황의조는 이달 A매치 2연전을 위해 벤투호에 합류한다. 이날 소집하지만 소속팀 일정으로 20일 도착할 예정

이다. 한편, 올림피아코스가 야심차게 영입한 2014 브라질월드컵 득점왕 출신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선발로 나서며 데뷔전을 치렀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그룹 엔믹스가 7개월 만에 돌아왔다. 엔믹스는 19일 오후 두 번째 싱글 '엔트워프'를 발매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믹스, 7개월 만에 컴백
두 번째 싱글 '엔트워프'
신예 '존재감 굳히기'

그룹 엔믹스가 7개월 만에 돌아왔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믹스는 이날 오후 6시 두 번째 싱글 '엔트워프'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다이스'를 비롯해 수록곡 '할'과 두 곡의 인스트루멘탈 음원까지 총 4곡이 실린다.

신곡 '다이스'는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한 곡에 융합한 '믹스 팝' 장르다. 세련된 재즈 사운드와 힙합 비트를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곡 전개가 특징이다.

가사에는 주사위 게임 속 등장한 미스터리 적대자와 그에 맞서는 엔믹스의 흥미진진한 서사를 담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컴백 쇼케이스 '뉴 프론티어 : 엔트워프'를 연다. 오프라인과 동시에 네이버 나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한다.

한편, 엔믹스는 JYP가 있기후 약 3년 만에 선보인 신인 걸그룹이다. 지난 2월 데뷔 싱글 '에드 마레'로 가요계에 발을 내딛었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박민지, KLPGA 메이저 'KB금융' 우승... 통산 14승

첫 2년 연속 상금 10억원 돌파

박민지(24)가 KLPGA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태뎀파이낸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민지는 18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파72-6688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KB금융 스태뎀파이낸셜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올 시즌 4승째이자 통산 14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이로써 역대 다승 순위에서도 김효주(13승)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KLPGA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은 고우희, 신지애가 보유한 20승이다. 고우희는 17승으로 3위, 장하나가 15승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민지는 또 이번 대회 우승 상금 2억 1600만원을 보태며 올 시즌 누적 10억 4000만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혔다. 박민지는 지난해 시즌 6승, 상



박민지는 18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KB금융 스태뎀파이낸셜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KLPGA

금 15억2100만원을 획득하며 다승왕·상금왕을 차지한데 이어 2년 연속 다승왕·상금왕 자리를 예약했다.

특히 KLPGA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0억원 상금 돌파를 기록하며 누적 46억원 을 기록하며 장하나(57억6100만원)를 이어 역대 통산 상금왕 타이틀에도 도전하고 있다.

박민지는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후반에 실수가 나왔는데 오늘 실수를 안하려고 집중했다"며 "너무 집중하려고 했는지 야디지복(코스 정보 기록지)을 잃어버렸는데 이후 단순하게 플레이하고 했는데 잘 풀린 것 같다. (야디지복 분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 LIV골프 이적 후 첫 우승... '56억 잭팟'

인비테이셔널 시카고 대회 V

남자 골프 세계랭킹 3위 캐머런 스미스(호주·사진)가 LIV 골프에 이적 후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스미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치 허스트팜스(파72)에서 열린 LIV골프 인비테이셔널 시카고 대회(총상금 2500만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3개를 쳐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스미스는 피터 유라인과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스미스는 우승상금 400만달러(한화 약 55억6000만원)를 획득했다.

스미스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이 끝나자마자 LIV골프로 이적했다. 당시 세계랭킹 2위 선수의 이적으로 골프팬들은 깜짝 놀랐다. PGA 투어 역시 선수 유출로 충격에 빠졌다.

스미스는 LIV골프 이적 후 2경기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유라인과 존슨은 최종합계 10언더파 200타를 기록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재미교포 케빈 나는 1오버파 214타를 쳐 공동 34위에 머물렀다.

단체전에서는 존슨과 테일러 구치, 페 레즈, 페트리 리드(이상 미국)로 구성된 '4 에이스'가 최종합계 24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4연속 우승을 차지해 최강의 면모를 뽐냈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